

보도일시

즉시 보도 가능

배포 2023. 12. 19.(화) 14:00

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

- 서·남해 연안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,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수온 하강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2월 19일(화) 14시부터 서·남해 연안(내만 포함)에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, 저수온 위기경보 「주의」단계를 발령하였다.

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번 주까지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(내만 포함)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(12. 19. 14시)하였다.

* (~~예비주의보~~) 주의보 발표 예측 7일 전 → (~~주의보~~) 수온 4℃ 도달 또는 도달 예정 → (~~경보~~) 수온 4℃ 3일 이상 지속

현재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(최근 30년) 보다 약 0.5℃ 내외 높은 상황으로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*가 작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으며, 저수온 특보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그러나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 기류 약화로 간헐적 한파에 의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.

* 예비주의보 발표시기 : (2020) 12. 18. / (2021) 12. 23. / (2022) 12. 9. / (2023) 12. 19.

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 유도과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등을 지도·점검하고 있다. 또한,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고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여 양식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올 겨울 북극 온난화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,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*와 저수온 속보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,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숙지 등 저수온 대응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말했다.

* 국립수산물과학원 누리집 '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(www.nifs.go.kr/risa) 및 '수온정보서비스' 애플리케이션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진희 (044-200-5610)
		담당자	사무관	서경란 (044-200-5616)
	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	책임자	과 장	한인성 (051-720-2210)
		담당자	연구관	민병화 (051-720-2750)
			연구사	황재동 (051-720-2751)
	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	책임자	과 장	임현정 (051-720-2410)
		담당자	연구관	남보혜 (051-720-2420)
			연구사	최 진 (051-720-2431)



참고 1

저수온 특보 발령 해역

